

미래

5%의 경제성장과 7%의 세계교역신장률 예상

2006년도 경제 전망

한국 산업연구원은 2006년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를 전망했다. 전반적인 자료는 산업연구원에서 출처했고, 일부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6년 경제전망'에서 출처한 내용임을 밝힌다. 한국은행은 2006년 한 해의 세계경제를 양호한 성장세로 보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성장률보다 다소 낮아지겠지만 과거 평균치(1995~2004년 3.8%)보다는 높은 4%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교역신장률은 2005년과 비슷한 7%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편집자 주

최근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2005년 하반기 이후 수출 호조가 두드러져 성장세가 가속화되었다.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진행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상승하였고, 순수출도 견조한 증가세 지속에 힘입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수의 다른 축인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경제는 2005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에 나타난 강한 경기회복 기대감은 유가 급등과 환율 하락 및 내수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후퇴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대외여건의 호전과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소비자기대지수는 2/4분기 이후 지속된 하락세가 3/4분기 말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통계청이 지난 해 4개월간의 소비자기대지수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소비자기대지수(6개월 후의 소비전망)는 95.4(6월) → 95.2(7월) → 94.8(8월) → 96.7(9월) → 97.5(10월)로 상승세 전환이 이어졌다.

대 외 여 건 전 망

1. 세계경제, 2005년의 성장세 유지

2006년의 세계경제는 2005년과 비슷한 4.3%의 성장이 예상되며, 주요국 경제 역시 2005년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3%대 초반, 일본과 유로는 그보다 낮은 2% 내외, 중국경제는 8%대 후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05년보다는 다소 낮은 평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평균치(1995~2004년 3.8%)보다는 높은 4%정도를 달성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및 중국의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는 반면, 유로지역과 일본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여타 지역의 성장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고성장으로 연간 10%대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낸 세계교역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2006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7~8% 수준의 신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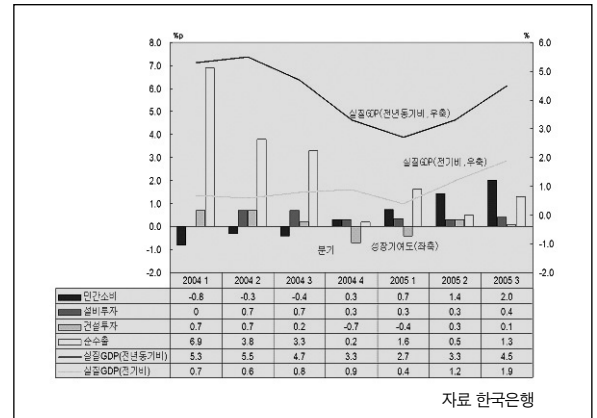


그림 1. 실질 GDP성장률 및 항목별 기여도 추이

2. 국제유가, 50달러 초반 예상

2006년중 국제유가는 장기간의 유가 상승과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로 추가적인 급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표 1. 세계경제 및 교역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 전년 동기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망)
		1/4	2/4	3/4	연간(전망)	
세계	5.1	-	-	-	4.3	4.3
OECD	3.3	2.5	2.6	-	2.4	2.3
미국	4.2	3.6	3.6	3.6	3.5	3.2
일본	2.7	1.3	2.2	3.0	2.4	2.0
유로	2.0	1.3	1.1	-	1.3	1.9
중국	9.5	9.4	9.5	9.4	9.4	8.8
세계교역	10.3	-	-	-	7.0	7.4

주: IMF; OECD; 미 상무성; 일본 내 각부; 유로 통계청

표 2. 국제유가 전망

전망기관	IMF		EIA		UN		EIU	
전망시점	05.9		05.11		05.11		05.11	
연도	05년	06년	05년	06년	05년	06년	05년	06년
원유가격	54.2	61.8	57.3	64.4	55.6	59.3	56.7	56.3
(상승률)	(43.4)	(14.0)	(38.4)	(12.4)	(45.2)	(6.7)	(46.9)	(-0.7)

자료: IMF; EIA; UN; EIU

주 : 1)IMF는 3대 유종 가격 가중평균, EIA는 WTI유, UN과 EIU는 브렌트유 기준
2)2004년 연평균 가격은 IMF 37.8달러, EIA 41.4달러, UN 38.3달러, EIU 38.6달러



나,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어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 당 50달러대 초반(연평균)이 예상되고 있다. 신흥개도국의 고성장으로 원유소비량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OPEC의 증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주도하는 불안정한 수급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3. 원/달러 환율은 다소 하락 예상

2006년에는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상반기 중 다시 약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여 원화환율은 상고하저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으로는 2005년도의 1,020원대 보다 약간 낮은 1,010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 완화를 시사한데 이어 현재 기준 금리를 2%와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로권과 일본이 올해 중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어 금리 격차 축소에 따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중국 등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통화가치 절상 압력의 가중이 원화 강세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적으로는 무역흑자의 지속과 주식시장의 활황세 지속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인한 달러화 공급 우위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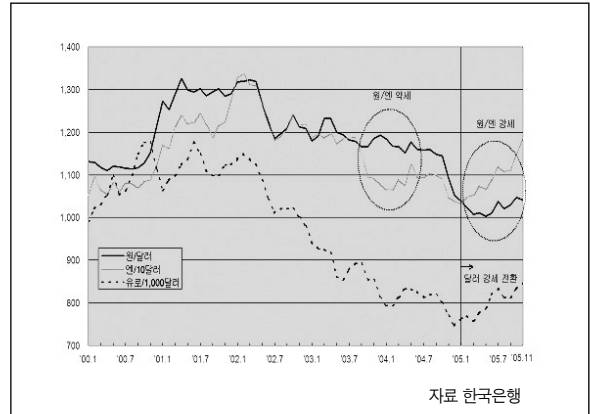


그림 2. 원, 엔 및 유로화의 대미 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내 경제 전망

1. 경제성장률 5%대 안정기조 정착 예상

2006년의 국내경제는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져 안정적 성장기조가 정착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는 건설투자의 부진과 설비투자의 미약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에 의해 주도되어 성장기여도가 3%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중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유지, IT경기의 회복, 유가와 환율의 불확실성 축소 등으로 두 자리 수의 수출 증가율이 유지되면서 수입 증가율은 다소 낮아져 견조한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 민간소비, 4%대의 회복세 지속

2004년 4/4분기 이후 증가율이 플러스로 반전된 민간소비는 2005년 하반기에는 4%대로 증가율이 높아진데 이어, 2006년에도 4.6% 정도의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신규고용 증대와 가계부채 조정, 증시 활황 및 부동산가격 안정에 따른 소비여력의 증대가 소비 증가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서비스 수요회복이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소비부진의 한 원인이 되어 온 자영업 소득 침체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소득격차의 확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문제, 노후 불안에 따른 저축유인 증대 등의 구조적 요인이 상당기간 동안 소비를 제약할 전망이다.

3. 설비투자, 증가율 다소 상승

2005년 4% 내외 증가에 그친 것으로 예상되는 설비투자는 2006년에는 7%를 웃도는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상승을 주도할 정도의

표 3.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전년 동기대비 %, 억 달러)

	2005년			2006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GDP	3.0	4.7	3.9	5.0	4.8	4.9
민간소비	2.1	4.0	3.0	4.8	4.4	4.6
설비투자	3.0	4.3	3.7	7.5	7.0	7.3
건설투자	-0.2	0.7	0.3	1.5	1.7	1.6
수출(억달러)	1,365	1,482	2,847	1,523	1,623	3,146
(전년동기대비, %)	(10.8)	(13.5)	(12.2)	(11.5)	(9.5)	(10.5)
수입(억달러)	1,242	1,361	2,602	1,398	1,519	2,917
(전년동기대비, %)	(14.9)	(16.9)	(15.9)	(12.6)	(11.6)	(12.1)
수출입차(억 달러)	124	121	245	125	104	229
경상수지(억 달러)	87	75	162	60	76	136
CPI	3.1	2.6	2.8	3.1	3.0	3.1
PPI	2.8	1.9	2.3	2.2	0.6	1.4
원 달러 환율	1,015	1,035	1,025	1,021	1,006	1,014
실업률	3.7	3.6	3.7	3.8	3.5	3.6
회사채수익률	4.3	5.1	4.7	6.0	6.0	6.0

주: 수출 및 수입은 통관기준

강력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민간소비의 회복이 아직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력하지 않고 기업 내외적인 투자유인의 미흡 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다.

2006년 중에는 민간소비의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의 증가로 설비투자조정 압력이 높아지면서 설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 수출입, 두 자리 수의 증가세 지속

2005년 하반기 이후 유가 급등과 환율 급락 등의 악조건을 이겨내고 호조세가 재개된 수출은 2006년에도 10%를 약간 웃도는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상반기 중 10.8%의 증가를 보인 수출은 하반기 들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대폭 늘어나 증가율이 13.5%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중에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건실한 성장세 유지, 세계 IT경기의 회복, 환율과 유가의 변동성 축소 등의 양호한 수출여건에 힘입어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유지할 전망이다.

2005년 중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15% 넘게 증가했던 수입은 2006년 중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12% 수준으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2006년 중 수출 증가율이 10%대, 수입증가율이 12%대를 각각 기록할 경우 무역수지 흑자는 2005년에 이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